

# 삼성전자, 美 기업 ‘젤스’ 인수 의료기관 연계 헬스케어 키운다

**SAMSUNG xhealth**

갤럭시 스마트폰·워치 정보 통합  
‘초개인화 헬스케어’ 전략 추진  
향후 가전제품 연동 서비스 확대

삼성전자가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젤스’를 인수하고, 갤럭시 기반의 커넥티드 케어 서비스 확대에 나선다.

삼성전자는 젤스와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연내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인수 금액은 계약에 따라 비공개다. 젤스는 2016년 미국 대형 병원 그룹인 프로비던스 헬스 시스템에서 분사해 설립된 기업으로, 병원과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젤스는 미국 내 500여 개 병원, 70여 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업체와 파

트너십을 맺고 있다. 주요 파트너에는 프로비던스 헬스, 배너 헬스, 애드버케이트 헬스 등 미국의 대표적인 병원 그룹이 포함돼 있다.

젤스 플랫폼은 의료진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당뇨, 임신, 수술 회복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처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 측에서도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헬스케어 기기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의료기관과의 데이터 연계를 강화한 본격적인 디지털 헬스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워치, 링 등에서 수집되는 건강정보를 ‘삼성헬스’ 앱으로 통합하고, 이를 젤스 플랫폼과 연결해 병원 진료와 일상 건강관리를 하

의 흐름으로 묶는 것이 목표다.

특히 삼성전자는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춘 ‘초개인화 헬스케어’ 전략을 추진한다.

기존의 단발성 건강 측정이 아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헬스케어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 가전제품과의 연동도 추진해 사용자 맞춤형 환경 제어 및 생활 패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 직무대행(사장)은 “삼성전자는 혁신 기술과 업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사람들이 일상에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젤스의 폭넓은 헬스케어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더해 초개인화된 예방 중심 케어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혜민기자 hyem@metroseoul.co.kr



GS칼텍스가 지난 4일 GS타워 본사에서 허세홍 대표이사 사장(왼쪽 두번째)을 포함한 회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AI(GenAI) 교육을 진행했다. /GS칼텍스

## GS칼텍스, 사내 생성형 AI ‘AIU’ 오픈

최소한 코딩 ‘AI 에이전트’ 개발

GS칼텍스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GS칼텍스는 사내 생성형 AI 통합 플랫폼 ‘AIU’를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AIU는 AI와 油(기름 유)를 합친 단어로, 전통적인 정유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담은 이름이다.

GS칼텍스는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AIU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은 회사 데이터와 전문지식을 외부 생성형 AI 서비스에 업로드하지 않고도, 다양한 생성형 AI 도구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AIU는 임직원들이 생성형 AI 기술과 회사 내부 데이터를 결합해 손쉽게 AI 에이전트(사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능형 디지털 도우미)를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AIU는 디지털 기술에 전문성이 없어도 최소한의 코딩으로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노코드·로우코드 기반의 직관적인 개발 도구를 지원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KGM 액티언 하이브리드.

/KGM



기아 더 뉴 쏠렌토 하이브리드.

/기아



르노 그랑 콜레오스 주행모습.

/르노코리아

## 액티언 가세... ‘중형SUV’ 춘추시대 열렸다

하이브리드 SUV ‘격돌’

중형 SUV 시장에서 좀처럼 힘을내지 못하고 있는 KG모빌리티(이하 KG M)이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앞세워 시장공략에 나선다. 국내 자동차 시장은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특히 중형 SUV 시장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판매량 확대를 위해 가성비 경쟁까지 벌이는 모양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세련된 스타일로 완성한 ‘액티언 하이브리드’를 이날 본격 출시하고 판매에 돌입했다.

KGM의 두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국내 하이브리드 모델 중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주행 퍼포먼스와 연비 효율을 갖춘 도심형 SUV다. 선호도가 높은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기본화하고도 3600만원의 단일 트림으로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양은 프리미엄 모델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 세련된 쿠페형 실루엣에, 직렬형 듀얼모터 기반의 ‘듀얼 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했다. 도심 전기주행 비율은 무려 94%, 복합 연비는 15km/L에 달한다. 그동안 액티

KG모빌리티 ‘액티언 하이브리드’ 편의사양 기본 3600만원 단일트림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 판매량 72%  
기아 쏠렌토 판매 72% ‘하이브리드’

스텔란티스코리아 ‘완전변경’ 푸조  
BMW, 7년 만에 ‘신형 X3’ 선보여

언은 하이브리드 라인업 부재로 지난해 4909대, 올해 상반기 1864대 판매에 그쳤다. 반면 경쟁 차종인 르노코리아의 그랑 콜레오스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2만524대, 올해 상반기 1만9605대를 판매량을 기록했다.

현대차 싼타페와 기아 쏠렌토와 경쟁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는 지난해 7만8609대 중 하이브리드 모델이 72.3%를 차지했으며 기아 쏠렌토는 지난해 9만5040대 중 71.6%가 하이브리드였다.

KGM 관계자는 “액티언 하이브리드는 세련된 디자인, 탁월한 연비, 승차감 등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모델”이라며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SUV를 찾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입차 업체들도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을 위한 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8년 만에 완전 변경된 푸조의 도심형 SUV ‘올 뉴 3008 스마트하이브리드’를 최근 출시했다. 3세대 모델은 가솔린·디젤 엔진이 탑재된 기존 1·2세대와는 달리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됐다. 도심 환경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약 50%를 전기로 주행 가능하며 복합기준 연비는 14.6km/L를 달성했다. 특히 가격은 4490만~4990만원대로 8년전 국내 출시 가격 그대로다.

BMW는 7년 만에 완전 변경된 신형 X3를 출시하며 강렬한 디자인과 첨단 인테리어, 그리고 최신 한국형 내비게이션 등 디지털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강력한 성능, 동급 최고 수준의 연비로 ‘운전의 즐거움’과 실용성을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이다. 도요타와 렉서스는 하이브리드 SUV 라브4와 NX 350h로 국내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다양한 외부 악재로 일시적 수요 정체에 빠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확보한 하이브리드 수요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향후 하이브리드 SUV 시장은 디자인, 성능, 브랜드 경쟁력을 갖춘 모델을 중심으로 인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 기아, 준중형 전기SUV ‘더 기아 EV5’ 공개

다섯 번째 전기차... 하반기 출시

기아는 8일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더 기아 EV5’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EV5는 EV6, EV9, EV3, EV4에 이어 기아의 다섯 번째 전용 전기차로 준중형급 정통 SUV 바디타입을 적용했다. EV5의 전면부에선 넓은 스킵드 플레이트(하부 보호판)와 보닛이 강인한 인상을 주고 측면부에선 여유로운 내부 공간감과 트렁크 공간을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다.

19인치 휠에는 기하학적인 다이아몬드 커팅 조형이 적용됐고 사각 펜더(바퀴 덮개)가 어우러졌다. 후면부에는 콤팩트 램프가 수직, 수평으로 길게 뻗어있고 범퍼가 차체 전반을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실내에는 12.3인치 클러스터, 12.3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디스플레이, 5인치 공조 디스플레이를 묶은 파노라믹 와이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됐다.

1열은 넉넉한 콘솔 수납공간이 마련됐고 2열엔 콘솔 슬라이딩 트레이가 장착됐다. 운전석, 조수석, 2열의 독립적인 냉난방 제어도 가능하다. 2열 시트는 앞으로 접었을 때 수평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야의 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EV5는 전동화 기술의 혁신과 실용성이 조화를 이루며 국내 EV 대중화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공간감과 81.4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삼원계(NCM) 배터리 탑재를 통해 보다 넉넉한 주행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삼성전자, 폴더블폰에 ‘원 UI 8’ 첫 탑재

암호화 스토리지 등 새롭게 도입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모바일 보안을 대폭 강화한다. 신제품 폴더블폰에 차세대 운영체제 ‘원(One) UI 8’을 처음 탑재하고, 암호화 스토리지, 기기 간 위협 차단, 양자 내성 암호 기술 등을 새롭게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공개하는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Z플립7·폴드7에 차세대 운영체제 ‘원(One) UI 8’ 정식 버전을 탑재한다고 8일 밝혔다.

원 UI 8의 핵심은 ‘개인정보 보호’다. 삼성은 새로운 보안 기능인 ‘킵(KEEP)’을 도입했다. 킵은 갤럭시 AI가 기기 내에서 학습한 데이터를 외부 앱이나 서버와 완전히 분리해, 민감 정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 기능은 삼성 보안 플랫폼인 ‘녹스볼트’ 기반으로 작동한다. 앱마다 암호화된 저장 공간을 따로 만들고, AI 기능이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더라도 외부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 사용자의 일상, 선호도 등 민감 정보는 기기 안에서만 관리된다.

/이혜민 기자